



아쉬움 남지만 즐거웠던 추억으로

독일 월드컵 - 한 달간의 취재 일정

■ 약속의 땅? 스코틀랜드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네요. 5월 27일 대표팀과 함께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월드컵을 앞둔 대표팀의 베이스 캠프였죠.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바뀌는 번덕스런 날씨, 밤 10시까지 계속되는 백야 현상. 하지만, 6월의 스코틀랜드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하더군요.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느낄 수 있으니까……. 대표팀의 담금질은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국내에서 하지 못한 체력 훈련과 실전에 대비한 미니게임이 주를 이뤘죠. 그런데, 출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남일, 박지성, 이을용 등 주력 선수들이 줄줄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제 컨디션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르웨이, 가나와의 최종 평가전에서 실망스런 모습으로 이어졌죠. 월드컵이 코앞인데, 걱정이 앞섰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치는 이미 16강 너머에 있는데… 뻣뻣한 일정에 선수들이 많이 지쳐보였습니다. 몸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월드컵을 향한 의지는 뜨거운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여겼던 스코틀랜드가 오히려 대표팀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그런데, 아드보카트 감독의 노련함은 대단하더군요. 가나에게 3대 1로 지고 난 뒤 첫 인터뷰에 “가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상대한 팀 중 가장 강팀이다. 우리 선수들은 잘 싸웠다”고 속으로 성질은 났겠지만, 선수들의 사기를 생각한 거죠. 가끔은 명장다웠습니다.



명에 달하는 독일 교민들에게도 이번 월드컵은 꽤 가슴 설레는 이벤트였습니다. ‘월드컵에 출전해 우리 선수들이 독일에 온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1승을 했을 때는 이민 와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노라’고 흥분해서 말하는 모습에 ‘축구가 축구 이상의 무엇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붉은 악마들의 활약도 대단했죠.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한국에서 건너간 사람들 외에도 유럽 각지에서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몰려들었죠. 토고전 때는 경기장의 60%를 차지했으니까 경기장에만 3만 명 가까이 모인 거죠. 우리 선수들 체력이 좋다고 하는데,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저렇게 응원하다 지쳐 쓰러지는 건 아닌지……. 그들의 체력도 선수들 못지않았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은 모여야 힘이 생깁니다.

■ 한국 축구, 17등? 32등?

우리나라 축구에 대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원정 첫 승? 물론 값진 성과였지만, 진실의 눈은 냉정하죠. 누구에게도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토고전은 이겼지만, 웬지 개운치 않았고, 프랑스전은 비겼지만, 자랑스럽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패한 스위스전이 화끈했죠. 원인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먼저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죠. 긴장한 탓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몸이 무거웠어요. 아마 개개인에게 물어보면 제 실력을 모두 발휘했다고 하는 선수는 한두 명에 불과할 겁니다.

선수들 자신들이 잘 관리하지 못했거나, 전지훈련부

터 시작해서 스케줄 관리가 적절치 못했거나…둘째로 작전의 실수입니다. 월드컵을 코앞에 둔 최종 평가전에서 선수들의 경기력이 떨어지니까 감독은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물론 한 번도 그런 내색은 안했지만, 그래서 고민이 많아지고, 토고전부터 전에 보지 못한 전술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죠. 몇 가지만 짚어보면 ①토고전 전반 때 전면적인 수비작전(후반에 역전하긴 했지만, 전반에 7명, 9명이 수비만 하다가 선취골을 허용했죠) ②선수들의 갑작스런 포지션 변경(이영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정환은 새도우스트라이커로 이동. 전체적으로 혼란과 불안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③마지막으로, 이호와 김동진에 대한 절대 믿음.(결국, 이 선수들과 함께 러시아로 가

면서 어느 정도 심증은 포착됐죠?)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17위를 했습니다. 16강에 탈락한 팀 중 조별예선 성적이 가장 좋았죠. 하지만, 개개인의 능력은 32등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2002년 대회에서는 우리가 세계 수준과 견줄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대회였다면, 이번 대회는 그러나 아직 차이는 분명하다고 깨달은 대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는 수준은 ‘17등에서 32등 사이…’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역시 추억으로 남는 건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네요. 나름대로 즐거웠으니까 불만을 토로하는 건 아니구요. 발전적인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가장 골치 아팠던 건 인터넷 송출 문제예요. 사정이 우리나라만 같으면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워낙 IT 선진국인지라. 유럽의 인터넷 사정은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특히, 스코틀랜드에서 며칠 동안은 리포트 하나 송출하는데 7~8시간씩 걸렸죠. 호텔에서 무선인터넷을 썼는데, 5분에 1%씩 커지는 전송 막대기를 보면서 애태웠던 밤들이 쉽게 잊혀지지 않네요. 취재팀이 현장에 더 있지 못한 것도 조금은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스포츠부원이라서 꺼내는 얘기가 아니라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랄까요? 타사같이 엄청난 물량공세는 아니더라도 다음엔 좀 더 다양하고 알찬 취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재 스포츠부

■ 대~한민국!

독일에 도착해 인상 깊었던 게 있습니다. 대표팀 훈련과 함께 월드컵 분위기를 취재하러 다니는데, ‘대~한민국’이 이곳에서도 꽤 유명한 단어였습니다. 전대회 4강팀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독특한 응원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2002년 당시 연일 외신을 통해 접한 붉은 악마의 응원에 축구의 나라 독일도 꽤 감명을 받았나 봅니다. 쾰른 광장 앞에서는 인터뷰를 부탁한 한 시민에게 꼭짓점 댄스를 가르쳐 달라는 무리(?) 요청까지 받았습시다. 강하게 거부했지만, 결국 넓은 광장에서 어설픈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 제 리포트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문제의 장면은 이렇게 해서 탄생한 그림이었습니다. 4만

3월호 목차

- | 2 | ▶ 노조출범- 청맹? …청명!과니
2006 지방선거- 상생을 논하다
- | 3 | ▶ 새로운 서울 적응기

- | 4 | ▶ 프로그램 탐방 - 출발! 7
- | 5 | ▶ 디지털 칼럼 - 뉴미디어 IPTV
- | 6 | ▶ YTN-SO 협력, 미래는 밝다!

- | 7 | ▶ 특파원보고서 - 정선배, 리포트 하실 건가요?
YTN방문가- 생존감과 긴장감이 공존
- | 8 | ▶ 기상센터는 언제나 맑음

8기 노조 출범

‘청맹(靑盲)? ... 청명(淸明)! 과니’



선한 경험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기득권을 누려 왔던 지상파 중심 방송 시장에서 ‘뉴 미디어 혁명’의 씨앗을 뿌리고자 ‘안정된 직장을 때려치우고’, ‘새내기로 보다 원대한 꿈에 도전하려고’, 그렇게 모여 첫 방송을 내 보냈던 1995년 3월 1일의 기억 역시 아직도 생생합니다.

기록적인 지리산 폭우가 쏟아지던 1998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겐 ‘퇴출이나, 희생이나’의 기로로서 더

1994년 봄, 주요 일간지에 실렸던 전면 컬러판 사원 모집 광고를 기억하십니까? 채 1년이 남지 않은 방송 출범을 앞둔 우리나라 최초의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 YTN의 사원 모집 광고! 눈부신 파란색 바탕만큼이나 신

욱 처절하게 기억되는 해입니다. 모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의 “힘 내세요”라는 격려가 ‘갈라진 입술을 적셔 주는 물 한 모금’이라는 기억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랬던 우리 삶의 터전이 비록 적은 규모지만,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가속화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서 DMB를 출범시켰고, 지속 성장을 위한 여러 신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봐야 할 때입니다.

주마가편(走馬加鞭)해야겠지만, 수구초심(首丘初心) 역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권력화 될 때’ 남는 것은 ‘퇴출!’ 뿐입니다. ‘경영’ 뿐만 아니라 ‘보도’와 ‘사업’ 등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8대 노동조합은 역대 노조들이 이룩해 놓은 튼튼한 반석 위에서, 회사의 발전을 위한 동반자이자 건전한 비판세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중점 활동방향으로 이미 선거 과정에서 밝혔던 5가지 원칙을 되새깁니다. 책임경영의

풍토 확립, 공정방송의 원칙 사수, 지속적인 콘텐츠 혁신 추진, 조직문화 개혁, 그리고 사원 복지 확대입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디지털 멀티미디어의 발전, 새로운 시장을 놓고 펼쳐지고 있는 자본의 각축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련이자 도전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도의 전행으로 굳건히 자리매김 하고, 새로운 방송 보도의 영역을 개척하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파고에 맞서 힘쓸리지 않고 변화를 선도해 나가려면 우리들 스스로 끈을 고쳐 매야 하겠습니다.

눈은 떴으되 보려 하지 않고, 이치를 알고 있으되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일컬어 ‘청맹(靑盲)과니’라 합니다. 한마디로 눈 뜬 장님이라는 말입니다. 8대 노동조합이 ‘청맹과니’가 되지 않도록 조합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쏟아주시고, ‘맑고 푸른 하늘같은’ 청명(淸明)을 지향하도록 채찍을 들어주시길 기대합니다.

현덕수 노조위원장

2006 지방선거 방송

케이블TV, 상생(相生)을 논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지난 1995년 케이블방송이 출범한 이래 YTN과 각 지역 SO사이에 여러 가지 협력이 있었지만 이번 같이 대규모로 계획적으로 진행된 적은 없었다. 케이블 방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SO와의 협력관계가 한층 중요해진 것이다.

1. 시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

당초 시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YTN이 제작을 맡고 SO는 구성안 등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기획했던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케이블TV방송협회와 각 지역 SO와의 협의 과정에서 당초 계획을 변경해 각 지역 SO협회가 주도적으로 토론회를 제작하고 YTN과 해당 시도의 전 SO가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SO의 제작 능력이 100분짜리 생방송 토론회를 무난히 제작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지난 5월 2일 대전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구와 부산, 경기와 서울까지 모두 5번의 토론회가 100분 동안 생방송됐다. 그 과정에서 당초 예정됐던 광주시장 후보 초청토론회는 여당 후보가 토론회 날까지 확정되지 않아 몇 차례 연기 끝에 결국은 취소되는 어려움도 있었다.

토론회는 YTN의 5개 채널(케이블, SkyLife, Tu

media, Mytn, DigitalYTN)과 SO의 1~2개 지역채널 외에 Yahoo Korea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되도록 하는 등 멀티 윈도우를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최대한의 시청자 층을 확보하는 동시에 뉴미디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방편이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는 각 SO의 카메라 워킹과 세트, 사회자 선정 등에 대해 통일성을 유지하는 부분이 어려웠다. 그러나 더 큰 어려움은 토론회를 공동 제작하는 데 있어 YTN과 SO측의 상호 이해를 조정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일이었다. 이는 향후 다른 협력 모델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리포트

시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동시에 진행했던 것이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자를 소개하는 리포트를 제작해 YTN 채널에 방송하는 것이었다. 그 동안 각 지역 SO는 해당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리포트를 방송해 왔지만 YTN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제한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들을 소개하지 못해왔다. 앞서 소개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토론회와는 달리 시군구청장 후보 리포트는 이와 같이 SO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따로 준비할 것이 없었다는 점도 이 기획의 한 특징이었다.

기획 단계에서는 먼저 전국 SO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다. 전국 SO의 보도 제작 책임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기획의 취지를 설명하고 제작상의 어려움은 없는지, 또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전국 30여개 SO에서 모두 45개의 리포트를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최종 파악됐다. 전체 기초자치단체 230곳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지만 참여 SO의 수는 MSO를 감안한다면 거의 40%에 육박했다. 이렇게 해서 5월 3주 동안 하루 3개 아이템 씩 SO의 리

포트가 YTN을 통해 방송됐다. 제작은 SO에서 한다면 송출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SO에서 사용하는 방송기자재와 YTN과 서로 맞지 않아 리포트 테이프를 컨버팅 해야 하는 일이 있었고 지역 SO의 경우에는 일일이 테이프를 YTN 지국으로 보내 본사로 송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떤 SO의 경우 1분 30초짜리 리포트를 위해서 8명이나 되는 후보자들을 일일이 취재하는 열의를 보여주었다. 이들 리포트가 기대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참여 기자들의 이 같은 성의 때문일 것이다.

3. 개표방송 시스템의 보급

이번 2006 지방선거에서 특별하게 언급할 것이 있다면 일부 SO가 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실시한 것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지상파 방송 등 대형 방송사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개표방송에 지역 SO가 참여한 것이다. 이를 위해 YTN은 독자적으로 개표방송을 하길 원하는 SO 10여 곳에 YTN이 제작한 개표방송 시스템을 보급했다. 전국 단위의 방송사들이 하지 못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위주의 개표 방송을 실시한 것이다. 해당 지역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은 이들 SO를 통해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개표방송을 시청했을 것이다.

결국 지방 선거 개표방송은 지역 언론의 중심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SO의 가능성과 역할에 충실했던 기획으로 평가받고 있다. 케이블TV와 DMB, 와이브로, 그리고 인터넷 방송 등 뉴미디어의 급속한 출현으로 방송의 외연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SO가 있다. 이번 YTN의 실험은 이런 SO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상호 협력의 단초를 마련한 데 그 의미가 있다. PP와 SO, 상생을 고민할 시점에 있다.

(이 원고는 방송기자클럽회보(2006년 6월 분)에 실린 내용으로 일부 수정했습니다.)

임수근 선거방송팀장

울산에서 서울로

새로운 서울 적응기



2002년 5월 4일!
 간단한 피나리붓집 하나만 달랑 챙기고 YTN 로고가 시원하게 박힌 회사차에 몸을 실은 채 경부고속도로를 내달리고 있다. 차 안엔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 휴게소를 세 번이나 들러 5시간 반 만에 도착한 낯선 땅은 울산. 110만 인구 중에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처음 발을 디딤 순간이다.
 그때부터 '서울 씨티보이'의 좌충우돌 '컨추리 적응기'는 시작됐다. 이전까진 부산팀에서 울산을 담당했다. 하지만, 취재팀이 울산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그런 울산에 내가 잠시나마라도 의탁할 만한 곳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막막할 수밖에.
 무엇이든 맨 처음은 누구에게나 깊은 인상이 남나 보다. 울산에서의 처음도 꽤 인상적이었다. 취재망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울산에서 가장 먼저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곳이 시청 기자실이었다. 당연히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그나마 취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포스트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 지

붕을 쓰고 있는 중앙지와 지방지 기자실이 당시에는 별도로 있었다. 우리 매체 특성상 중앙지가 맞다고 판단하고 중앙지 기자실 문을 두드렸다.
 정중히 인사를 하고 들어섰지만 도서관 칸막이 책상에 자리하고 있던 모든 선배들의 분위기는 냉랭 썰렁 그 자체! "저 YTN 아무개인데요. 중앙지 기자실에 정식으로 출입하고 싶어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대답이 돌아왔다. "여기 방송들은 다 지방지 기자실에 있는데..." 완곡한 거절이었다. 쿡하고 내려앉은 가슴을 떠받치고 이번엔 지방지 기자실에 들어갔다. "저 YTN 아무개인데요. 방송은 지방지에 속한다고 해서 저도..." "YTN은 방송이지만 로컬뉴스는 없지 않습니까. 중앙뉴스인데 당연히 중앙지로 가야지요." 정신없는 핑퐁게임에서 갈피를 못 잡는 탁구공 신세였다고나 할까. 적잖이 황당하면서도 당시엔 어금니 한 번 꼭 깨물고 뒤돌아서 기자실을 나온, 황당하면서도 코끝 찡하는 시추에이션이었다.
 문제는 결국 해결됐다. 결코 짧지는 않았다. 정확히 만 3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간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를 만든 사람들이 죽히 취재 수첩 한 개를 가득 채울만한 분량이 됐을 즈음이었다. 그때부터 '이제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도 괜찮겠다'면서 스스로에 대한 위안이 들었다. 그로부터 다시 1년 그리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간단한 피나리붓집도 혼자 있는 차 안

의 풍경도 낯선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4년 전 그대로다. 다만, 4년 전 회사 로고차는 애마인 구형 싼타페로 그리고 4년 전 울산으로 향하던 시선은 울산을 점점 멀리하며 서울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 달라졌을 뿐이다. 가파른 비탈길을 어렵게 오르고 나면 분명 수월한 평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그리고 그 평지 말미에는 다시 비탈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연합뉴스 전세방에서 새 사옥으로 옮긴 서울 생활은 다시 비탈길이다. 난생처음 보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어색한 만남, 알고 지냈던 사람들마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 난처했던 경험, 눈알 핑핑 돌아가게 굴러가는 방송 스케줄..... 참 뭐하나 쉬운 게 없는 요즘이다. 하지만 울산에서 보낸 장시간의 비탈길 경험 덕택에 이제 적당히 즐길 수 있는 경지가 된 것 같다. 다시 평지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말이다. 새로운 서울 적응기를 맞이해 아무 의미 없이 뽑아든 책 한 권에서 꽤 의미 있어 보이는 금과옥조를 낚아 올렸다. (비록 나이는 맞지 않지만...)
 "열여덟 살에서 스무 살까지의 삶은 시장과도 같다. 그 시장에서 삶의 가치들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는 것이다. (앙드레 말로)"
황보연 뉴스팀

포토뉴스



1 YTN 단독 대담 -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5.15)
 2 새 'YTN 윤리강령' 발효(5.15)
 3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5.16)

4 2006 지방선거 개표방송(5.31)
 5 8기 노동조합 출범(6.2)
 6 2006 대한민국 환경조경 박람회(6.2)

게시판

- 포상
 - ▲특종상 금상
김승재 뉴스3팀·박진수 영상취재팀-이명박 시장 '황제테니스' 논란 보도
 - ▲특종상 은상
고민철 영상취재팀·임장혁 뉴스기획팀-임종현의원 국회상임위 배경불만 폭언 보도 / 이선아 사회1부·권한주 영상취재팀-동부 일렉트로닉스 불산 누출 보도
 - ▲특종상 동상
구수본 사회1부·하성준 영상취재팀-연세살인 용의자 검거 보도 / 김재형 사회1부-보훈의 달 기념 음반에 친일가요 수록 보도 / 함형건 경제부-외환은행, 변양호펀드에 대가성 투자 의혹 보도
- 공로상
보도국 선거방송팀-「2006 지방선거 개표방송」공로 / 마케팅국 사업팀-LANDEX 2006 성공적 개최 공로 / 유희환 뉴미디어팀, 박형일 디지털기획팀-SO 인터넷 영상전송시스템 구축 공로 / 최동숙 총무팀-교원광고 물품 판매 증대 공로 / 기내경 그래픽팀-스튜디오 세트 디자인 공로 / 최영훈 기술관리팀-DTMF절체기 제작 공로 / 이기주 제작기술팀-기자 사진파일 제작 및 방송활용 공로 / 김해열 중계팀-「2006 지방선거」후보 초청 토론회 생방송 중계 공로 7. 5
- 입사
이선영·강은정 재무회계팀 6.12
- 퇴사
봉지욱 보도국 4.30 / 김연기 마케팅1팀 5.12 / 이상지 문화과학부 5.13 / 오승우 보도국 5.18 / 이재용 타워운영팀 5.31 / 최두영 총무팀 6.8 / 한아란 보도국 6.10 / 김영은 타워운영팀 6.30
- 승진
▲부국장대우 유석현 앵커팀장 ▲부장 홍문표 뉴스총괄단 CQ4, 한영규 뉴미디어팀장, 전용화 디지털기획팀장, 김익진 뉴스기획팀장, 추은호 사회2부장, 황영수·임영선(주) YTNMB 파견 ▲부장대우 임종열 기획팀장, 김홍식 인사팀장, 채문석 정치부장, 천상규 스포츠부장, 김형근 뉴스4팀장, 조항윤 영상기획팀장, 이성호 송출기술팀장, 이창준 제작기술팀장 ▲차장 송태업 경제부, 김동우 청주지국, 권오진 문화과학부, 이화용 영상취재팀, 김태동 기술관리팀 5.29
- 전보
박진언 마케팅기획팀 5.15 / 최대만 부장 타워운영팀, 한상규 차장 마케팅기획팀, 손재호 부산지국장 직무대행, 윤현숙 대구지국, 홍해주 사업팀, 하정안 마케팅1팀 5.29 / 이광연 차장대우 정치부 6. 5 / 임수근 차장대우 경제부, 김진우 사회2부, 홍성혁 뉴스기획팀 6.16 / 김경아 앵커팀 7. 1
- 부음
강철원 부국장대우 디지털뉴스팀 부친상 5. 7
- 결혼
최영훈 기술관리팀 5.20 / 정은임 국제부 5.20 / 최영욱 영상취재팀 5.20 / 홍상희 국제부 5.27 / 진유진 뉴스총괄단 5.28

또 하나의 아침 뉴스, <출발! 7>

“어? 아침 7시 뉴스가 언제 바뀌었지?”



▲ 왼쪽부터 조승호 김중균 박준열 지수영 정유신 이세나 윤재희 김기봉 김정희 전재성 김지현 최명신 유근민 김한수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지난 5월1일부터 매일 아침 정각 7시마다 윤재희 앵커가 새로운 아침 뉴스 보따리를 들고 시청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여는 <굿모닝코리아>를 맡고 있는 뉴스팀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발! 7> 어떻게 읽으셨나요? 출발 세븐? 출발 칠? 아닙니다. <출발 일곱시>가 정답입니다. 하루의 본격적인 시작을 YTN 뉴스와 함께 힘차게 출발하지는 의미입니다. 방송 일주일을 앞두고 타이틀이 결정된 뒤 저희 팀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바쁜 아침 출근시간대라는 점입니다. 타이틀과 브릿지, 음악, 진행 등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침 분위기에 맞추려 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새벽 5시부터 방송되는 <굿모닝코리아>와 8시부터 이어지는 <뉴스 오늘>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뉴스 시간대라는 것. 앞 뒤 뉴스와 반복해선 안 된다는 애깁니다. 때문에 2시간 뉴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리포트 등 호흡이 긴 콘텐츠는 피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주요 뉴스에서 방송되는 중요 리포트는 <출발! 7>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늘어날 DMB 시청자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출근하면서 무가지 신문을 몇 개씩 받아 훑어보듯 머잖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DMB를 보며 출근하는 것이 익숙한 풍경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앵커 오디오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읽어주는 뉴스' 보다 화면이나 그래픽, 자막 등을 적극 활용하는 '보여주는 뉴스'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서있는 PDP의 비밀...

다른 뉴스와 어떻게 차별화할 지도 고민이었습니다. 앵커 샷을 어떻게 잡을지가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단조로울 수 있는 원 앵커 샷을 어떻게 할 것인가? 2부조의 평면적인 배경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다 결국 PDP를 세로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사진 참조) 이른바 '피벗 기능'이라고 하죠? 요즘 LCD 모니터 광고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 회사 내에 있는 PDP들은 '피벗 기능'이 없는 모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YTN에서 안되는 게 어디 있지? 그냥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70만원의 거금을 들여 특수 받침대를 주문 제작했습니다. 자유자재로 PDP를 세울 수도 눕힐 수도 있도록 말이죠. 방송 중에 PDP가 넘어져 윤재희

앵커가 깔리는 끔찍한 사태를 막기 위해 아래에 철근도 목직하게 넣었습니다. 문제는 PDP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만에 아예 눕혀서 그래픽을 제작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만들 때 옆으로 눕혀서 이미지를 만들었으니 세우면 제대로 보이도록 말이죠. 그랬더니 멋진 피벗 화면이 나오더군요. 하지만 이후 그래픽팀에서는 출발 PDP에 넣을 그래픽 제작을 위해 고개를 돌린 채로 작업하느라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보는 뉴스

"방송 뉴스란 말이야, 발가락 사이로 보는 거야"라고 모 선배가 입버릇처럼 얘기하곤 했습니다. 누워서 발가락 사이로 TV를 보더라도 뉴스가 한눈에 이해가 되도록 기사와 그림을 쉽게 하란 거죠. 24시간 내내 심각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쁜 출근시간에 심각한 표정으로 눈에 힘주고 TV앞에서 집중해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출발! 7>에서는 어깨 힘을 빼고 눈에 힘 풀었습니다. 칫솔질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결눈으로 봐도 부담 없는 뉴스가 목표입니다. '아, 오늘 저런 뉴스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말이죠. 음악으로 하면 멜로디가 좋은 가요 정도라고나 할까요? 가사는 잘 몰라도 띄엄띄엄 부를 수 있는 정도. 직장 동료와 뉴스를 화제로 가볍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요 핵심 뉴스만 짧게 전하고 느낌이 묻어나는 녹취나 앵커리포트, 그래픽 뉴스 등을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대개 그날 문화 콘텐츠를 총동원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편성 개편이 없었다면 1시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전부 따로 제작해야 했을 겁니다. 아님 일반 정시뉴스와 별 다를 바 없었겠죠.

쉽고 편한 뉴스를 위해 굳이 앵커가 멘트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도 <굿모닝 코리아>에서 자세히 전한 만큼 <출발! 7>에서는 화면과 문말로 핵심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DMB 시청자도 고려했습니다. 다른 주요 코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뉴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음악이나 현장 이펙트를 통해 아침 시간대에 생동감을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바쁜 아침이라도 계란 하나는 있어야...

아침 출근시간에 TV나 DMB폰으로 뉴스를 본다면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물론 날씨와 교통이 기본일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전하도록 포맷을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뉴스 동안 날씨 정보는 모두 네 번 나옵니다. 헤드라인에서 생활날씨 지수로 두 번, 기상센터 출연이 두 번, 10분만 봐도 한번은 날씨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교통도 15분 45분대에 두 번 고정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구간별 교통정보까지 그래픽으로 전해주시니 DMB로 봤을 때도 한눈에 시내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1시간 동안 다른 건 몰라도 날씨와 교통만큼은 제대로 챙겨주려 합니다. 아무리 아침이 부실해도 계란프라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든든할 테니..... 또 <출발! 7>는 정치/경제/사회보다 국제/문화/네트워크 뉴스를 위한 시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 아쉬운 것은 시간 제약 때문에 한 분야 뉴스를 많이 내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고정 배치하는데 그치지만 앞으로 좀 더 유기적인 짜임새를 갖추려 합니다.

YTNDMB에서 제작하는 <영상다이러리>

비장의 무기로 새롭게 선보인 코너 가운데 하나는 바로 YTNDMB의 김지연 앵커가 진행하는 <영상다이러리>입니다. 3분 정도 영상이나 인터넷을 통해 화제가 되는 내용을 화면 중심으로 전하는 코너입니다. 낮 시간대에는 오래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코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침시간에는 준비가 어려웠습니다. 생방송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코너는 녹화물입니다. 원래 YTNDMB를 통해 인기리에 방송되던 주요 코너로 장차 '킬러 콘텐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구성물입니다. 그래서 협의 끝에 DMB의 녹화 지원을 받아 <출발! 7>에도 함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방송에 나오지 않은 알토란같은 영상과 사진, 톡톡 튀는 멘트가 시선을 잡아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어디서 이런 것을 찾았을까 하는 의문까지 들 정도입니다. 매일 같이 제작에 애를 써주시는 <영상다이러리> 제작팀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



또 하나의 아침 뉴스, <출발! 7>

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밖에도 그날 화제의 뉴스 인물을 집중 소개하는 '뉴스 인물', 아침 신문 만평을 방송으로 보여주는 '시사만평', 밤사이 인터넷 화제, 전국 7대 도시 주유소 기름 값의 최고/최저 가격을 전하는 '오늘의 기름 값 등도 <출발! 7시>를 구성하는 주요 코너입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코너들이 이어지다보니 브릿지 타이틀도 많이 사용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쁜 아침'으로 이름 붙인 타이틀입니다. 시계바늘이 돌아가며 지하철 바쁜 풍경을 보여주는 영상과 함께 '안녕하세요'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노래, 분주한 아침 분위기에 딱 어울리는 음악입니다. 아마 YTN 브릿지 역사상 인디밴드의 음악이 처음으로 사용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식문 PD의 '강추'로 덤픽 제작은 했는데, 혹시 심의에서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더군요. 다행이 별 언급 없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참 노래 제목이 뭐냐구요? 미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브루스리 밴드'의 '안녕하세요'란 곡입니다.(지금은 해체됐다는 설도.....) 이렇게 한 달을 숨 가쁘게 방송해 왔습니다.

<굿모닝코리아>가 끝나자마자 숨도 제대로 못 돌리고 바로 이어지는 <출발! 7> 때문에 함께 작업하는 분들이 매일같이 고생입니다. <출발! 7>와 한 달을 지내본 소감입니다.

- 정창원** "매일 추석특집입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이보다 더 복잡한 뉴스는 없다. 새로운 뉴스의 지평 '출발! 7 핫팅!'"
- 류근민** "재미있는 '출발! 7' ~ 불만합니다"
- 전재성** "'출발! 7' 재밌다. 정보는 덤~이요!"
- 김한수** "'잘하자 '출발! 7' 파이팅'"
- 박준열** "'새로운 재미, 방송하는 즐거움이 있는 '출발! 7'"
- 박지훈** "'활기찬 출발, 다양한 정보, 상쾌한 아침은 '출발! 7'"
- 박두만** "'어려운 내용 쉽게 풀이가는 방송'"
- 윤재희** "'기본 좋은 하루를 출발하고 싶다면 '출발! 7과 함께!'"
- 김지현** "'노력이 보이는 '출발! 7! 언제나 파이팅!!'"
- 김지연** "'아침, 아름다운 세상과 젊은 뉴스가 있다. '출발! 7'"
- 이세나** "'출발! 7, 시청률 1위? 파이팅!"
- 조승호** "'YTN 뉴스의 새 바람을...'"
- 김종균** "'DMB의 총아 '출발! 7,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 김정희** "'고생했다. 우리 조 아이디어 맨!"
- 김선영** "'하루 일과의 출발! YTN의 출발! 항상 새롭게 출발하는 힘찬 '출발! 7'이 돼 주세요'"
- 지수영** "'타도 노현정! GOGO 윤재희!"
- 김기봉** "'사선으로 솟아오르는 힘의 화살, 끝이 어딘지 한번 가보자!"
- 오윤경** "'아침에 마시는 토마토주스처럼 상큼하고 색깔 있는 뉴스버타민!"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괜히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 죄송스런 마음도 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아침 뉴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분들 덕분에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 7>가 뉴스 1팀에 '혹'이 아닌 '복'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질책과 조언, 위로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정유신 뉴스팀



박형일의 디지털 칼럼 <2>

뉴미디어-IPTV

기술은 진화하고 발전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술의 변화 Cycle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과거 10년을 쓰던 제품이 이제는 2~3년(혹은 1~2년)을 주기로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디지털 뉴미디어가 생겨나서 융합되고, 분화되고, 사라지면서 발전한다.

지난 십 여년 동안 전화, ISDN, 삐삐, 시터폰, 아날로그 휴대폰, PCS, IMT-2000, Wibro, HSDPA 등으로 수많은 정보통신 수단들이 변화하고 있고, 방송도 아날로그 TV로부터 SD/HDTV, Interactive TV, DMB, IPTV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 뉴미디어는?

뉴미디어는 올드미디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미디어 시장을 아직 점유하지 못했지만, 향후 미디어로서의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새로운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 왜 뉴미디어가 인기인가?

기존의 통신수단이던 유/무선전화, Text 위주의 인터넷 등의 미디어는 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새로운 디지털 통신매체는 멀티미디어의 전송이 가능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멀티미디어가 방송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매체에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즉, 통신매체에서 방송콘텐츠(디지털)의 전송이 가능해진 것이다. 대표적으로 IPTV, Wibro, HSDPA, DMB 등이 있다.

주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뉴미디어가 발전하고 있지만, Interactive TV, VOD, 데이터방송 등을 포함하는 Digital TV, DMB, HDTV 등은 방송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뉴미디어이다.

뉴미디어는 기업에게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주면서, 시청자에게는 차별화된 쌍방향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 IPTV 란?

IP(Internet Protocol)TV는 인터넷 통신규약을 기본 근간으로 만들어진 매체이다. 인터넷은 1:1의 통신과 1:n의 멀티캐스트가 모두 가능한 기술이다. 기존의 인터넷 방송이 인터넷 서버와 1:1 통신에 의한 방송이었다면, IPTV는 멀티캐스트 인터넷 라우터(장비)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에게 동시에 멀티캐스트 전송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인터넷 방송에 비해 고품질의 방송이 가능하면서 통신대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지털 TV이다.

배경기술이 어떻든지 최종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케이블 TV와 별 차이가 없다. 단지 인터넷 프로토콜로 전송되는 TV이고, VOD 서비스가 다른 매체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기술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IPTV는 STB(Set Top Box)라고 하는 컨버터 안에 1~999번 채널변경이 가능한 고화질의 윈도유미디어플레이어가 감춰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IPTV의 실체는 매우 간단하다.

IPTV는 제도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기술적으로는 무궁무진한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문화적인 콘텐츠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IPTV를 통신이라고 규정하는 기술적 접근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

■ IPTV는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가?

IPTV는 통신사업자만이 가능한 방송서비스이다. IPTV를 준비하는 KT와 하나로통신의 서비스는 약간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모델을 보여준다.(참고로 2~3년 후 CATV사업자도 IPTV서비스 가능함).

KT는 디지털방송이 초이고, 하나로통신은 VOD Push 서비스 위주로 준비하는 듯하다. 초기 투자비용은 하나로통신이 적게 들것이고, 대규모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는 KT가 유리하다.

대규모 가입자만 확보한다면, 그 가입자를 기반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VOD 서비스가 될 것은 자명하다. 현재의 D-CATV가 VOD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터넷(IP)의 기술적 배경에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사실이다.

최근의 국내 CATV 동향을 볼 때, MSO가 권역을 크게 확대하면서 전파 전송매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다(심지어 지상파까지). 향후 IPTV라는 전송매체 역시, 사업자에 따라 기회와 함께, 가혹한 생존을 위한 경쟁을 동시에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케이블 TV		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업 주체	기간통신사업자(KT, 하나로통신 등)
지역 단위	서비스 지역	전국 단위
수십~수백 채널 가능	방송 채널수	수십~수백 채널 가능
디지털 양방향 서비스	서비스 형태	디지털 양방향 서비스
VOD 서비스 EPG(Electric Program Guide) 프로그램 예약 및 SMS 데이터 방송 홈뱅킹 등	부가서비스	VOD 서비스 EPG(Electric Program Guide) 프로그램 예약 및 SMS 데이터 방송 홈뱅킹, 게임 웹 검색, VOIP(인터넷 전화) 등

■ 기술의 진화발전은 확률게임?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의 진화는 가정과 개인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가정은 홈네트워킹이 구축되어 VOD 콘텐츠의 Delivery와 저장에 가능함으로써, 콘텐츠의 Anytime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영화의 인터넷 Delivery는 당연한 것이고, 멀티미디어 뉴스도 Delivery하는, 맞춤형 뉴미디어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무수히 많은 뉴미디어 기술이 생겨나고 있다. 모두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성공하지 못할 것도 없다. 따라서 성공하는 미디어도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 반대로 시장진입에 실패하는 미디어도 점점 많아질 것이다.

디지털기술은 확률게임 같이 계속 진화발전하고 있다. 이에 효과적인 대응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음에는 무선분야의 뉴미디어와 멀티미디어포맷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박형일 디지털기획팀

영상전송시스템 구축

YTN-SO 협력, 미래는 밝다!

이번 SO 방문은 PGA투어를 방불케 하는 대장정이었다. 6월 3일~4일 당진·공주·익산 방문에 이어 6월 9일~10일 충주·원주 방문 그리고 6월 16일~19일 목포·순천·진주·포항·안동 방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3차례로 나눠 진행된 이번 투어는 YTN과 10개 SO 간의 보도제작 협력이란 뜻 깊은 결실을 맺기 위한 긴 여정이었다.



원주 영서방송 사옥 앞에서 최성호 차장, 류환홍, 박형일

YTN도 SO도 서로 필요했다

이 여정에는 나를 포함해 매체관리팀 최성호 차장과 디지털기획팀의 박형일씨 등 모두 3명이 참여했다.

우리는 방문하는 SO에서마다 미리 준비한 MOU 서류를 꺼내두고 SO의 임원 및 보도제작 담당자들에게 이번 협력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MOU 체결에 대한 흔쾌한 동의와 함께 양사 간의 협력에 대한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혹시나 과거의 YTN이 지녔던 고압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SO 업계의 부정적 인식이 협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했던 우려는 그야말로 기우였다. 그들은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SO도 나름대로 지역매체로서 자체 보도제작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던 터라 자체 제작 뉴스가 지역은 물론 YTN을 통해 전국적으로 방송되는데 대해 큰 호감을 나타냈다.

YTN이 SO를 필요로 했던 만큼 그들도 YTN을 무척이나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는 YTN의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고, 대외적 위상이 무척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또한 열악한 제작여건 가운데서도 전국 취재망의 실패한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던 지국 사원들의 노력이 크게 한 몫 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SO 보도제작 담당자들은 YTN 지국 기자들과 좋은 협력관계를 이미 맺고 있었기에 양사 간의 이번 뜻 깊은 보도제작 협력은 순풍에 돛을 단 듯 순탄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MOU 체결에 이어 준비해 간 영상편집 프로그램(피너클 무비박스)을 전달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

용해 과거보다 훨씬 간편하게 영상 전송이 이뤄지게 됨을 잘 설명해 주었다. SO 보도제작 담당자들은 이미 NLE를 이용한 디지털 영상 편집에 능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의 설명을 쉽게 이해했다.

대부분의 SO에서 지역뉴스는 15분~20분간 녹화로 이뤄진다. 생방송을 하는 곳도 있지만(금강방송) 거의 대부분은 녹화로 제작했고, 2번~6번 정도 재방송을 했다. 보도제작팀은 20명~30명가량이었고, 이들은 디지털 카메라와 편집기로 촬영과 편집을 하고 있었다. NLE 편집에도 매우 능숙해 보였고, 이는 아카이브 시스템을 제외한 방송의 전 과정이 디지털화 돼 있는 방송환경에 일찌감치 적응한 덕분인 것 같았다.

정작 그들에게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사용법을 설명하는 입장에 놓인 나 자신이 실은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였다. 참고로 나는 이번 출장을 마친 후 영상편집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 집에 있는 PC에 다 바로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협력 정신이 시스템보다 더 중요

이번 YTN-SO 간의 보도제작 협력은 1차적으로 YTN 지국 취재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10개 SO에 국한해 이뤄졌다. 하지만 이런 협력은 앞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그리고 그 협력의 폭도 확대될 것이다. 그 가능성은 이번 방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

이제 남은 것은 모처럼 마련된 이런 협력의 단초를 잘 살려 나가는 것이다. SO들이 협력에 잘 응해줘야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YTN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SO들도 YTN이 전국적인 YTN과 SO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

그럼 YTN이 이런 협력의 성공을 위해 기울여야 할 노력은 어떤 것일까?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YTN-SO 영상전송시스템에서 창구 역할을 맡은 부서의 자세일 것이다.

SO에 화면을 요청하거나 SO로부터 화면 전송요청을 받을 때 협력의 정신을 잘 발휘해 주는 것이 시스템 구축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MOU를 체결한 10개 SO 가운데는 지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곳들이 꽤 많다. 그런 SO들에게는 지국이 현재처럼 창구역할을 잘 해주고, 지국과 별다른 유대관계가 없는 곳에는 사회2부가 창구역할을 잘 해주면 될 것이다.

접점에 있는 부서와 담당자들이 서로에 대해 파트너십을 잘 발휘할 때 영상전송시스템은 원만하게 가동될



충남·영서방송 보유 포터블 중계기

것이고, 특히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협력이 좀 더 확대된다면 해당 SO 관내에서 중요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 YTN이 도움을 받을 일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1보를 접했지만 화면 확보가 어려워 애를 태운 적이 많았던 YTN으로선 지국 기자들이 현장에 닿기 전에 1차적으로 SO의 취재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만 된다면 지상파방송과의 속도 경쟁에서도 강점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다.

SO와 함께 하는 취재 네트워크

또 이번에 SO를 방문해 보니 SO의 취재 인프라가 바깥에서 막연히 짐작했던 수준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거의 모든 SO가 제작과 송출과정의 디지털화(SD급)를 이미 마친 상태였고, 일부는 중계차나 포터블 중계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역매체가 다 보니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적어도 디지털화에 있어선 YTN보다 훨씬 앞서 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앞으로 YTN 본사와 지국, SO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지상파방송에 비해 훨씬 열악한 지역취재망을 갖고 있는 YTN이지만 결코 지상파방송에 뒤지지 않으리란 선부른 낙관을 해본다.

지상파방송사들조차 SO에 대해 협력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이 이런 SO의 가치를 미리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아직까지는 SO도 YTN에 대해 애정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케이블TV의 발전을 위해 공헌해 온 YTN과 YTN 종사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산 금강방송 스튜디오

그래서 이번 협력이 일단 10개 SO를 대상으로 시작됐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SO와 더욱 폭 넓은 형태로 발전되리란 예상 해본다. 그리고 이것은 YTN의 역할과 역량에 달려 있다.

이미 충분히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특히, 5·31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합동토론회 공동 생중계를 계기로 YTN에 대한 SO업계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선거방송팀원들의 노력이 큰 기여를 했다. 이런 협력 분위기를 앞으로 잘만 살려 나간다면 CNN이 미국 전역에 구축한 취재 네트워크 못지않은 취재 네트워크를 YTN이 구축하게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류환홍 뉴미디어팀

특파원보고서 ③- 워싱턴

“정선배, 리포트 하실 건가요?”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과 인터뷰를 끝내고.

– 천정배 법무장관이 워싱턴을 찾았다. 미국 비자면제와 탈북자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던 시점이다. 언제나 그렇듯 특파원 간담회(6월 9일)가 열렸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지만 펜타곤 근처 알링턴 우래옥에는 적지 않은 특파원들이 모였다. 뒤늦게 들어서는 몇몇 기자들이 한마디씩 던진다.

“많이들 왔구먼...”
그래, 다른 때보다는 특파원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기는 하다.

“정치적 비중을 고려했나 보네.....”
“아니, 현안이 걸려 있잖아.....”
한차례 수군거림이 지나갔다. 워싱턴은 정말이지 국제 인사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탈북자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일까, 자연스레 질문이 쏟아진다. L.A. 이민법원이 탈북자 서재석씨 망명을 허용한 것이 하나요, 미국이 탈북자 6명을 난민으로 인정해 받아들인 것이 둘째다. 천 장관은 우선

서재석씨의 망명 허용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국적 탈북자의 망명을 허용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들을 탄압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 행정부가 설명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화법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다. 얼마 전 동남아를 통해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 6명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이다.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고 인도적 견지에서 본인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 제3국으로 오길 희망하고 그 국가가 받아들이면 그것까지 반대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 천 장관 간담회 다음날(6월 10일)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의회 입구에 있는 아담한 러셀세넛공원(Russel Senate Park)에서 열렸다. 가느다란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따사로운 봄날의 정오다. 그렇지만 야외 공원에서 회견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듯하다. 주제가 탈북자 문제이기 때문일까.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A4 용지 앞뒤로 빼곡히 적어온 내용을 읽어 내려간다. 북한인권법의 공동발의자요, 며칠 전 탈북자 6명의 미국 입국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미 행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인 것은 한국전 이후 반세기만에 처음이란 다.

언론의 관심이 잔뜩 고조돼있다. 미 행정부와 의회에서 탈북자문제를 부각시키니 언론도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우리와 미국은 물론이고 탈북자 문제의 또 다른 축인 중국 기자들의 얼굴도 보인다. 언제나 현장에

몰려드는 일본 언론의 관심도 집요하다. 질문이 쇄도한다.

“대북인권공세가 북핵 6자회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그의 답변은 간단명료하다.

“6자회담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다목적 포석을 깔고 있는 듯하다. 북한과 중국을 향한 인권 공세로 6자회담의 물꼬가 트이면 더욱 좋다. 그렇지 않다 해도 과거 구소련과 동구권을 겨냥했던 ‘헬싱키 협약’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브라운백 상원의원도 그래서 부시 행정부 내 대표적인 헬싱키 멤버로 꼽히고 있으니까 말이다.

– 회견이 길어지면서 YTN은 마음이 조금해진다. 재택근무인지라 사무실인 버지니아 집까지 가려면 시간이 제법 걸린다. D. C.내 national press building에서 근무하는 다른 언론사와는 좀 다르다. 말하려면 길다. 걱정 끝에 국제부 야근자에게 새벽 방송에 좀 늦을 지도 모른다고 통화했다. 막내동이 야근자가 묻는다.

“정선배, 그걸로 리포트하실 건가요?”
정말 곤란한 지경이다. 화면 스케치도, 녹취도 없는 데..... 다른 때처럼 눈 딱 감고 몽땅 다 얻어오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설명하자면 복잡하다.

귀가후 고민 끝에 인터넷을 뒤져 AP통신에서 기사 거리를 찾았다.

YTN의 그날 리포트는 ‘미 FRB, 기준금리 0.25%p 또 다시 인상’ 이었다. **정영근 워싱턴 특파원**

YTN을 다녀와서

생동감과 긴장감이 공존하는 스튜디오



5월 3일, 스튜디오에서 육군장교들의 기념촬영

육군의 정책부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식 공보 트레이닝’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뉴스전문채널 YTN을 방문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육군의 정책부서 실무 장교들의 방문이어서인지 YTN에서는 사장님과 상무님이 직접 나오셔서 우리들의 방문을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환영을 해주었다. 간단한 회사소개와 뉴스가 제작되는 과정을 체험했는데, 특히 뉴스가 제작되는 방송스튜디오는 마치 우리 육군의 작전 상황실처럼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시청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게 전달되는 뉴스가 사실은 생동감과 긴장감이 공존하는 방송 스튜디오 내에서 이러한 긴박한 상황들을 거쳐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유사시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군의 가장 큰 임무인 것처럼 뉴스 또한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잘못 전달된 뉴스는 개인이나 단체 혹은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준다. 이는 잘못된 작전이 주는 피해와 다를 바 없다. 그렇기에 항상 국가안위를 제일 목표를 삼고 있는 군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YTN이나 그 기본에는 항상 국민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24시간 뉴스를 제공하는 YTN은 경계태세를 갖추고 늘 깨어있는 우리 군인의 일상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어 더욱 친근한 방송사이다. 우리 군에서 제일

발 빠르게 뉴스를 전해줄 수 있는 방송사,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실에서는 24시간을 항상 YTN과 함께 하며 군 관련 소식은 물론 국내·외의 주요 뉴스들을 접하고 있다. 또한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정보통신기술과 더불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콘텐츠들을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YTN DMB 등 시청자의 요구와 기호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YTN의 노력은 우리 군에서도 배워야 할 요소인 것 같다. 육군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홍보의 중요성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보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방문을 통해 더욱 절실히 깨닫는 아주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육군의 변화하는 모습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다양한 군의 참모습들이 YTN 화면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져본다. 아울러 YTN이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뉴스전문채널로 자리매김하기를 시청자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

박미애 소령 육군본부 정책홍보실

새로워진 기상센터

늘 변화를 시도하는 기상센터가 또 한 번 큰일을 냈다. 4월부터 시작된 빨랫줄·우산예보는 신선함 그 자체다. 새 얼굴 박소현, 이세나의 당당한 발걸음도 기대된다.



왼쪽부터 한민정 박소현 김진두 양혜경 정혜윤 (빨랫줄 그래픽)김지현 ▶



기상센터는 언제나 맑음

“제가 꼭 하겠습니다!!!”



5월 23일 면접,

자기소개를 해보란 말씀에 저는 주먹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너무 떨린 상황에서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말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면접 후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이 항상 뒤돌아 서있지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YTN’이라고 선명히 박힌 출입증을 손에 꼭 쥐 채 출근 중이니까요.

사회생활 초년생인 저로서는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내가 뭘 우선으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빨리 적응 하는지…… 거울 속에서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물가에 내놓은 어린이가 마냥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기만 합니다.

그저 YTN이라는 회사에 제가 들어와 있다는 자체만으로, 또 늘 TV에서만 봤던 앵커 선배님들, 또 우리 기상팀 선배님들 얼굴만 봐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현재는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의 박소현입니다. 하지만 YTN의 한 식구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박소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기상캐스터 박소현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이죠.

박소현 기상캐스터

막내 세나, 지켜봐주세요^^



드디어 YTN의 교통·기상캐스터란 이름으로 골(GOAL)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경험이라고는 대학교 때 학교 방송국에서 방송을 했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신출내기입니다. 아직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22살의 풋내기지만 앞으로 더욱 더 많은 골을 넣게 될 가능성을 보고 저를 뽑아주신 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방송’이라는 두 단어만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방송을 YTN에서 시작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매일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야 한다는 게 가끔은 힘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원하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겐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욕심도 많고 열정도 많은 이세나입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허황된 욕심에서 끝나지 않고, 지식이 없는 무가치한 열정에서 끝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항상 가슴에 품었던 ‘방송’이라는 두 단어 한 마디를 더 보태어 품고 있습니다. ‘당당하되 교만하지 않고, 온유하되 나약하지 않은 이세나가 되자.’ 아직 실수도 많고, 미흡한 점 투성입니다. 하지만 항상 따뜻한 관심 가져주시고 잘못하는 것 있으면 꾸짖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YTN의 디딤돌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우승 골을 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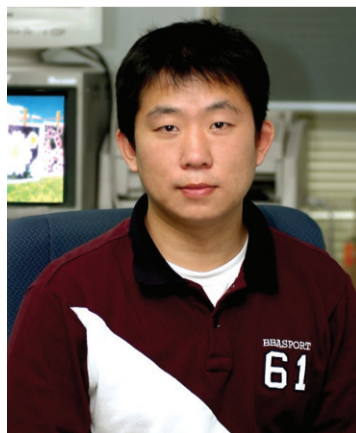
이세나 교통·기상 캐스터

“빨랫줄에 날씨가 걸려있으면 어떨까?”

기상센터 그래픽디자이너 강병운입니다. 날씨 그래픽이란 시청자로 하여금 “콘텐츠, 정보전달+호기심유발”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콘텐츠에 날씨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때론 부드럽게, 때론 강하게 전달할 것이며 시청자의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 던져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빨랫줄예보〉는 타 방송국과 마찬가지로 너무 평범한 그래픽과 정보전달은 시청자로 하여금 지루하고 다시 보고 싶은 날씨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방송국과 같은 포맷의 디자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날씨라는 특수성 때문에 재미라는 코드를 접목할 수 있었고, 그래서 떠오른 아이디어가 날씨에 밀접한 빨래와 날씨입니다. “빨랫줄에 날씨가 걸려있으면 어떨까?”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생각을 그림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빨랫줄의 자세한 생김새, 색깔 폴라로이드사진(날씨 정보) 등 자료조사, 수집부터 시작해서 소스촬영, 정보의 가독성, 어떤 식으로 날씨정보를 빨랫줄과 연결 할 것인가 등이 중요했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날씨정보)의 날씨 정보는 빨랫줄에 걸려있는 만큼 바람에 살랑살랑 자연스럽게 흔들려야 더욱 완성도 있고 재미있을 꺼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쉽게 폴라로이드 사진(날씨정보)이 자연스레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6시간 동안 흔들리는 것만 애니메이션시켜야만 했습니다.

〈빨랫줄예보〉를 제작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저 뿐만 아니라 제가 없을 때도 〈빨랫줄예보〉가 제작되어야 하고 초보자도 10분 이내에 제작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결국 갖은 아이디어를 총 동원해 성공하였습니다. 〈빨랫줄예보〉를 기획, 제작, 방송으로 완성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맑은 날에 빨랫줄은 적절하지만 흐리거나 비 오는 날에는 다른 그래픽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에 가장 적절한 〈우산예보〉를 제작하였습니다. 〈우산예보〉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소스는 비 오는 날 직접 촬영하였고 우산은 그래픽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역시 우산예보에는 폴라로이드사진(날씨정보)이 걸려있고 폴라로이드사진(날씨정보)은 우산 뒤에서 돌아 앞으로 나오며 빨랫줄예보와 마찬가지로 흔들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D와 3D와의 결합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트래킹’이라 합니다. ‘트래킹’이 가장 오래 걸렸고 어려웠습니다. 〈빨랫줄예보〉와 〈우산예보〉를 제작하면서 끊임없는 아이디어 창출과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 할 수 있는 코드만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YTN 사무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새로운 콘텐츠와 YTN만의 색깔이 되도록 발로 뛰고, 사진으로 찍고, 스케치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며 회사에 기여 할 수 있는 진정한 디자이너로 거듭나겠습니다. 기상센터의 미래는 언제나 맑음입니다.

강병운 문화과학부